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5월 15일(주일) 제1393호



달려라풍당 스페셜라이딩 참가자들이 활짝 웃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 '달려라풍당!'

CGNTV 달려라풍당 캠페인 3,600여 명 참가
5월 28일까지 캠퍼스별 달려라풍당 스페셜라이딩

운동한 만큼 다음세대를 후원하는 CGNTV '달려라풍당' 캠페인에 벌써 3,600여 명이 동참했다(5월 12일 기준). '달려라풍당'의 참가자들은 6월 6일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운동한 만큼 '풍당교회학교'를 후원한다. 풍당교회학교는 CGNTV가 전국 200개 교회에 교회학교 운영을 위한 장비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5월 7일

(토)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달려라풍당 스페셜라이딩이 열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달려라풍당 홍보대사 이무송 집사 등 참가자 400여 명과 대학청년부 '풍당맨'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에 우리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며 "기간 내에 열심히 달려서 건강도 얻

고 다음세대도 세우자"고 권면했다. 한들길 성도는 "딸이 지난해 행사 때 많이 좋아해서 올해도 함께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려라풍당 스페셜라이딩은 5월 28일까지 캠퍼스별로 개최한다. 5월 14일 강동, 양지, 5월 21일 수원, 평택, 부천, 대전, 5월 28일 부천, 인천, 세종에서 스페셜라이딩을 한다.

아직 '달려라풍당'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5월 22일(일)까지 '네이버 폼'과 기부플랫폼 '체리'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행복드림 콘서트' 열기 뜨겁다!

유튜브 영상 조회 2,300회,
부모 22명 세례 신청

60세 이상 만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윤희주와 함께하는 행복드림 콘서트(이하 행복드림 콘서트)' 열기가 뜨겁다.

지난 5월 2일(월)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벌써 유튜브 영상 조회 2,300회를 넘었고, 부모 22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했다(5월 13일 기준). 만지 않는 부모를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서두르면 좋겠다. 행복드림 콘서트에서 결신한 부모님을 위한 세례식이 5월 28일(토) 오후 3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4부 토요주일에배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행복드림 콘서트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5월 중에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1분 분량)와 꽃 등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 5월 28일(토) 오후 4시에는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풍도 한다.

문의: 02-3215-3214,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5월 14~15일 제이홈(J Home) '입양위탁행사'

5월 15일 차세대 스승의 주일 '감사 이벤트'

5월 14일(토)과 15일(주일) 사회선교본부 제이홈(입양위탁 커뮤니티)과 선한울타리(보육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하는 사회선교부의 새로운 사역)에서 '입양위탁행사'를 개최한다. 입양위탁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권장하는 목적이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입양 홍보데스크'를 설치하고 입양위탁기관 홍보, 제이홈 사역 브로셔 배부, 입양 상담 등을 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주일예배에서 입양 가족들이 간증도 한다.

오창화 집사(선한울타리 팀장)는 "대한민국

에 아동 1만3천 명이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고, 청소년 2만여 명이 장기거주해서 방황하고 있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부모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6면>.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차세대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 세트(드립백 커피)를 나눠준다. 차세대 부서별(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는땅, 파워웨이브)로 교사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갖는다.

차별금지법 반대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

5월 15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대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 경기, 인천),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연합 등이 연합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운동을 펼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5월 15일

(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대로(국회의사당역 1, 2, 3번 출구)에서 열린다. 다수를 역차별하고, 국민주권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5393-1981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

5월 20일 오후 3시 영락교회 본당

이 땅의 교육 회복을 위해 어머니들이 기도한다. 한국교회총연합회와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한국교회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눅 23:28)를 주제로 5월 20일(금) 오후 3시 영락교회(서울시 중구 저동) 본당에서 열린다.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는 1부 예배(한국

교회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2부 세미나(우리들의 자녀교육,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3부 기도회(한국교회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김영선 기자

생명주의 캠페인 '언플랜드 릴레이'

5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0개 교회가 생명주의 캠페인 '언플랜드 릴레이'를 한다.

낙태의 문제점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영화 '언플랜드'를 릴레이 상영하는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는 5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에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영화 '언플랜드'를 상영한다.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증 기증!

5월 22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에서 헌혈증을 기증받는다. 기증된 헌혈증은 수술이 필요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헌혈증 기증을 원하는 성도들은 5월 22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발가락 4개 절단한 채 고국땅 밟은 고려인 출신 난민 나탈리아의 엄마

고려인 출신 우크라 난민 46명 입국...전쟁 중에 수술 못받아
NGO '더멋진세상' 18명 입국 지원...“입국 지원 이어할 것”

고려인 출신 우크라이나 난민 46명이 고국 땅을 밟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0여 일 만이다.

나탈리아(47·여)씨를 포함한 46명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 가운데 18명은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몰도바의 난민수용시설에서 체류하던 중 국제개발NGO 더멋진세상(대표 김광동)의 도움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입국장에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 가족을 포함한 환영객 100여 명이 이들을 맞이했다. 우크라이나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피켓과 함께 아름드리 꽃다발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오후 6시 34분 휠체어를 탄 노인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인 오데사 출신의 스베플라나(71·여)씨였다. 그는 취재진에게 붓대에 싸인 오른발을 보여줬다.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가 절단된 상태였다. 그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전쟁 중 제때 수술받을 수 없었다”며 “의약품마저도 군인들에게 먼저 제공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9년 동안 사역했던 김종홍(오데사사랑의교회 담임) 선교사는 “한국 입국을 희망한 난민들도 있지만, 길어지는 전쟁 탓에 하는 수 없이 한국행을 결정한 난민들도 있다”며 “한국에 혈육이 없는 무연고자 난민들에게 더욱 각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는 “구한말부터 나



NGO 더멋진세상이 고려인 출신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영하고 있다.

그네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모국에서는 안식과 희망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 입국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이삭 인턴기자

* 이 기사는 2022년 5월 12일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을 전재하였습니다.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역사 2

우크라이나의 근세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한다. 11세기 십자군 운동 때부터 집단적 박해를 받은 서유럽의 유대인들은 14세기에 흑사병까지 서유럽에 유행하자 동유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이들을 받아준 곳이 폴란드였다. 폴란드 왕실과 귀족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에 있는 넓은 영지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상업 경험이 풍부한 유대인은 탁월한 선택지였다. 이러한 상호 간의 이해에 따라 유대인들은 폴란드가 16세기에 병합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남동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코자크

코자크는 드니프로강 중하류 도시들을 거점으로 한 자치 무장 집단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시대에 귀족들의 억압에 못 이긴 농노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콘스탄티노플과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까지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폴란드는 이들을 타타르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 이용하였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독립적인 자치권을 허락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폴란드 귀족의 강압적인 개종 요구와 생활 착취가 심해지자 코자크의 헤트만(지도자)인 보흐단 흐멜니츠키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 다양한 국가들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개입하면서 국제전 성격으로 격해졌으며, 폴란드 군대가 반격에 나서자 흐멜니츠키는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흐멜니츠키 반란의 결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을 드니프로강 서쪽으로 밀어냈지만, 키이우 지역은 러시아에 넘겨주게 되었다. 전쟁 이후 비옥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잃은 폴란드-리투아니아는 점점 약소국이 되었고, 러시아는 코자크를 제국 팽창에 이용했다.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제국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 소련

폴란드가 몰려간 이후 18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현재의 우크라이나 영토 80%는 러시아 제국(동부)이, 20%는 오스트리아 제국(서부)이 통치하였다. 러시아는 병합된 지역의 민족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탄압을 꾸준히 지속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 대부분이 서부 지역으로 탈출하였으나 러시아 제국 영내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완전히 사멸되지는 않았다.

1861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각 가정의 인원수대로 땅을 분배하였고, 높은 토지세를 감당하기 위하여 각 가정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서부 지역은 서부 유럽의 영향으로 민족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기 언어로 된 민속 문학을 수집하고 발간함으로써 민족주의의 근간을 만들어냈다. 비록 동부에 비해 서부는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인에게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은 그 어떤 전쟁보다 잔인하였다. 동부 우크라이나는 연합국(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고, 서부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동원되었다.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의 맨 앞에 서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부 우크라이나와 동부 우크라이나가 각각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20년에 동서 우크라이나의 통일을

선언하였으나 폴란드와 소련의 침략으로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는 소멸하였다.

1922년 다시 서쪽은 폴란드, 동쪽은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소불가침조약에 따라 폴란드에 속해있던 서우크라이나 지역이 소련에 합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에 우크라이나 국민위원회가 다시 독립을 따냈지만 이는 명목상의 독립이었을 뿐, 소련에 의해 재점령되었다.

비록 독립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게릴라 활동은 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계속된 무장투쟁은 1950년대 초반이 돼서야 끝났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투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련의 유화 정책을 끌어냈다. 유화 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1954년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은 러시아가 관리하던 크림반도를 우정의 선물로 우크라이나에 넘기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 국가 자격으로 유엔에도 가입했고, 두 차례에 걸쳐 순번제 이사국의 지위도 역임했다.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공업이 발전하였던 동부 하리코프, 도네츠크, 드네프르페트로스크 지역은 소련 최대의 중공업 지역이 되었다. 이 중공업 지역의 노동력을 위하여 소련 전역에서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 고려인들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인구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

1991년 독립 이후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자 연방의 다른 여러 나라처럼 우크라이나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경제적 상황은 상당히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갔다.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은 늘 문제가 되었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친서방과 친러 정권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였는데 어떤 정권도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했다. 2014년에는 러시아인이 많았던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친러반군, 러시아군 사이의 지속적인 전투가 일어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을 계속 추진하였고, 이에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다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록 우크라이나 민족이 독립적인 국가라는 정치 결사체를 길게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닌 민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행 17:26~27).

각 민족이 언제 존재하고,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 문제는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존재함을 확인하게 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크라이나 민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자!

/ 전은표 선교사(카이로스 동원디렉터)

* 이 글은 지난 3월 21일 한국선교KMQ에서 발행한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책자에 실린 글을 전재했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나의 행복이 될 때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본능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만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나타납니다. 결점과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가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멜의 계속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할 지라도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반하는 인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은혜로 용서하는 사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들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1~3절).

헤세드 사랑이 가정을 살립니다

호세아 6:1~6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면 가장 불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가정의 고통도 끊임없이 자신을 떠나고 배신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아내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호세아의 고통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호세아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고통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25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헤세드’를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사랑’이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깊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첫째, 허물과 죄를 은혜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이슬과 같다’”(4절).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고통이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고 변질하는 사랑을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스러울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배신하는 인간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3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빛처럼 일정하시고, 봄비처럼 변함없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배신과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담당하시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한없는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심으로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까닭은 그 대상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때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은 진노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매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일정하게 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침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몰아내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빛으로 우리를 비취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비추는 태양 빛이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매일 새벽빛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임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감사하는 사랑

둘째, 헤세드는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대부분 갈등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나의 모습처럼 바꾸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서로 다른 것을 기뻐하시고, 서로 다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가족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기까지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 차이를 알아도 받아들이지 말지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이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차이에 감사하고 존중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서로의 차이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가정은 서로 다르게 창조된 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감사하고, 존중하는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행복과 만족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안전감(security)’과 ‘중요감(significance)’입니다. 안전감이란 내가 사랑받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중요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가정 안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파괴됩니다. 가장 먼저 부모가 자녀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정감과 중요감이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그때 그 가정이 불완전하고, 자녀에게 큰 아픔을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받아들여지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사랑

셋째, 헤세드는 언약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가장 심오한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오직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때로 부부 간에 언약을 깨뜨리고 금지된 일을 행할 때 경험하는 어떤 스릴이나 욕구를 사랑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멜은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호세아는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에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호 2:19-20).

〈13면에 계속〉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

성공주의자에서 사랑주의자로!

과천의왕공동체 박효성 순장의 변화

자수성가(自手成家)를 위해 죽어라 일만 하다 신장(腎臟)을 잃었다. 창졸간에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과천의왕공동체 박효성 순장의 이야기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그 간절함을 토해내는 심경으로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박효성 순장의 삶이 달라졌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 되었다. 예수가 내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임하니까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하지 않게 됐다.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성공주의자에서 사랑주의자로 변한 박효성 순장(과천의왕공동체).

어느 날 과천의왕공동체 장정렬 장로에게 전화가 왔다. 과천의왕공동체에 정말 귀한 순장이 있다면서 꼭 한번 만나보라고 제안했다. 장정렬 장로가 이렇게 말했다.

“박효성 순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순장님이십니다.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데도 순장과 토요일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섬기는지 모릅니다. 순장 교육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십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박효성 순장님의 신앙입니다. 사랑이 정말 많은 분입니다. 박효성 순장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께 꼭 알려주십시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장애

박효성 순장의 드라마 같은 인생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된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삼남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사정이 얼마나 딱했는지 박효성 순장이 철들 무렵 본인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아버지가 목수셨는데 일을 마치고 힘들어하시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집안을 일으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부도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 다. 악물고 공부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데이터 분석과 기업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에 입사한 박효성 순장은 잠을 아껴가며 일했다. 탄탄대로를 걷지는 않았어도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보상이 박효성 순장을 절벽 끝으로 몰아넣었다. 반지하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경기도 용인에 집을 사서 월세도 뵈다. 살림이 나아질 때마다 성공이 손안에 잡히는 것만 같았다.

“자정 전에 퇴근하면 의욕이 없는 직원으로 찍힐 만큼 일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은행으로 파견을 나가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하루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아내도 제 도움이 필요했을 때였는데 성공이라는 욕심을 놓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스스로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앞이 흐릿하더니 엄청난 두통이 찾아왔다. 그리고 병원에서 신장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 달의 병원 생활 끝에

퇴원한 박효성 순장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

성경에서 찾은 해답 오직 사랑, 더 사랑하는 인생

“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만 뜨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덮었고, 눈을 감으면 거대한 바위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회사 복지도 안 되서 어렵게 산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고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효성 순장은 자신의 신앙이 기복신앙이었다고 고백했다.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이유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다.

“부끄럽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서 모든 문제는 마음과 생각(골 4:6-8)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5).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요일 4:16).

하나님은 박효성 순장에게 ‘오직 사랑’을 일깨워 주셨다. 그리고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해답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사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업무시간과 월급을 반절로 줄이는 조건으

로 복직했다. 회사를 사랑하고, 동료들을 더 사랑했더니 박효성 순장의 대우가 점차 좋아졌다. 박효성 순장이 가는 부서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과도 덩달아 좋아졌다. 그 덕분에 진급도 여러 차례 할 수 있었다.

“전에는 회사 리더십들과 마찰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도무지 잠이 안 와서 A4 용지에 리더십들의 단점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적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친절하게 리더십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리더십들을 먼저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리더십들도 직원들을 존중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선순환이 저와 제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다

박효성 순장은 올해 처음 순장이 되었다.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차례 혈액투석을 받기 때문에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도 순장과 토요일예배를 섬기고 있다. 박효성 순장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공동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과천의왕공동체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 정말 큰 행복입니다. 저희 과천B7순원들도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귀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과 동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순장인데 칭찬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웃음). 더 사랑하고 살라는 뜻으로 알고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박효성 순장이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성공이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것 같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만끽해보십시오. 저처럼 더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가정을 생명나무공동체로 바꾸는 방법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

한은경 권사
(두란노 어머니학교 이사장)

“오늘 우리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말이 빚어낸 작품”이라는 말이 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 하나는 ‘생명나무공동체’고 또 하나는 ‘선악과공동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생명나무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셨다. 생명나무공동체는 생명의 언어를 먹고 자라게 되어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생명나무공동체를 선악과공동체로 바꿔버렸다. 사탄이 생명나무공동체를 선악과공동체로 바꾸는데 사용한 것은 강한 힘이나 무기가 아니었다. 교묘한 방법으로 언어의 세계를 흐트러뜨렸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탄은 교묘하게 언어의 세계를 흐트러뜨림으로써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 하와는 그것을 또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 결과 생명나무공동체가 선악과공동체로 바뀌고 말았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갈비뼈를 취해 만드신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창 3:11)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라고 대답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언어가 사랑과 감사의 고백인 생명의 언어에서 불평불만, 비난, 책임 전가라는 죽음의 언어로 바뀌었다.

“생명의 언어를 죽음의 언어로 바꾸라!”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동요시켰다. 현대전에서는 통신시스템을 가장 먼저 공격해서 상대방의 의사소통 체계를 무너뜨린다. 가정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무너진 언어 세계를 회복해야 한다. 가정 안에 죽음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생명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악과공동체를 생명나무공동체로 바꾸는 것이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생명이 넘쳐야 한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다. 생명은 복음이고, 사랑이다. 생명은 진리이며, 은혜이다. 자녀에게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 생명의 언어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생명의 공동체로 만든다.

말씀 먹고 마시는 차세대 큐티 간증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3~4일 열이 39.8도를 넘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힘든 날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꾸준히 큐티를 했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읽던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해주시고 행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다윗의 시를 읽고 ‘나는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있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어요. 열이 펄펄 끓

던 3~4일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떠올랐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코로나19에 걸렸어도 감사한 것을 떠올려보기로 했어요.

먼저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감사했어요. 제가 학교에 가지 않았던 일주일일이 두드림 주간이어서 숙제가 밀릴 걱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은 형체가 생겨서 다시 코로나19에 걸릴 걱

정이 없어요. 이렇게 아픈 코로나19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감사해요.

단점도 있어요. 매우 아프고, 학교에 가지 못해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건 속상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축구랑 공부할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많은 친구와 학부 모님들, 소년부 선생님들, 일산공동체 성도님들이 우리집 문고리에 음식과 선물을 걸어주시고 위로해주셨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 음식도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코로나19를 잘 견뎌낸 것 같아요.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보니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나마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행겨주신 분들께 이 글을 통해 인사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신 형, 동생, 엄마, 아빠, 할머니, 삼촌, 학교 친구들, 친구 부모님들, 학교와 교회 선생님들, 일산공동체 식구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사랑해요!

/ 양지석 학생(서빙고 소년 1부)

사순절 성경쓰기 한 줄 소감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어요.

/ 조하이 학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허민서 학생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말씀을 썼어요. 예수님 닮은 세운이가 되고 싶어요.

/ 박세은 학생

예수님,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저주셔서 감사해요. 제사를 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 김화평 학생

성경 QUIZ

출제 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5월 10일 본문
(고전 4:1~5)



1. 바울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나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요, 하나님의 ()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입니다”(고전 4:1~2).

2.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답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직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1. 서로 사랑(2)



“입양해서 좋고, 입양해서 행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 ‘제이홈(J Home)’과 ‘선한울타리’ 사역
(입양위탁 커뮤니티) (보호종료아동 돌봄사역)

5월 14일(토)과 15일(일)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입양위탁행사’가 열린다. 온누리교회 입양위탁 커뮤니티 ‘제이홈(J Home)’과 보호종료아동(시설퇴소청년)의 자립을 돕는 ‘선한울타리’ 사역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다.

‘제이홈’은 사회선교본부 소속 입양가정 네트워크 및 입양 관심 가정 지원사역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하고 키우는 가정들의 모임이다. 입양, 위탁 홍보 및 안내, 입양가정 친목 도모 및 정기모임, 입양 세미나, 입양위탁 행사 등을 주관하고 있다. ‘선한울타리’는 시설퇴소 청년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서 자립을 지원하고, 일대일 결연 및 가정체험을 통해 가정을 경험하게 하는 사역이다. ‘제이홈’과 ‘선한울타리’ 사역을 알리기 위해 온누리교회 입양 가족들이 총출동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주일예배에서 입양 가족들이 간증한다. 입양 가족들의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입양해서 좋고, 입양해서 행복하다”는 간증은 똑같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입양 가족들의 간증

“우리 입양 10명 더 해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아들 둘, 딸 둘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

을 정도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랐다. 우리 부부가 섬기는 영아부에서 만난 선생님 가정을 보면서 입양을 접하게 되었고, 제이홈(J Home)이라는 사역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기를 입양하기 전에 큰애가 “나는 엄마가 낳아준 동생과 입양한 동생이 똑같은 것 같지 않아”라고 말했다. 충분히 공감됐다. 많은 예비 입양 부모와 주변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도 하다. 내가 낳은 아이랑 똑같은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큰애에게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해주었다. 큰애는 준기를 입양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했다.

준기를 입양하고 어느 날,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데 큰애가 내 옆으로 슬쩍 다가와 “엄마, 내가 예전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스럽고, 더 많이 예뻐요. 입양이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우리 입양 10명 더 해요!”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우리집 아이들 입술에 “입양 10명 더 해요”라는 말이 붙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약 13,000명의 보호 아동이 보육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그 아이들은 가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가정을 소망하지 못

한다. 보육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대일로 사랑해줄 부모와 안전하고 행복한 말씀이 있는 가정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고아를 돌보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 입양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 이제 여러분들이 입양할 차례다. 입양이 어렵다면 위탁도 좋다. 보육 시설 아동들의 가정체험을 돕는 것도 좋고,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선한울타리’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고아를 돌보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도전받고 함께 할 줄로 믿는다.

/ 이수정 성도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는 없다!”



우리 부부는 마흔 남짓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감사하게도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는데

데 7주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다. 그 이후 난임 진단을 받고 4~5차례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주일예배에서 유아세례나 신생아 축복기도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시험관을 더 할지, 입양할지, 자녀 없이 살지 확신이 서지 않아 기도 하는데 스가라 말씀이 떠올랐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슥

4:6, 9).

힘도, 능도 아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았으니 그 일을 마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차근차근 입양을 준비했고 예쁜 딸 예인이를 만났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늘 핑크빛 이야기만 가득하지 않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방법은 다르지만, 육아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 100만큼 사랑해”라고 말하고, 때로 실수하는 나에게 “괜찮아, 다 실수할 수 있어”라고 의젓하게 말하는 딸 덕분에 매일 웃고, 울며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입양했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이 곁에서 발뺌질 곁어가 줄 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탈런트 박시는 씨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보육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수많은 아이 중 에서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면 좋겠다.

/ 유보연 성도

“입양은 행복과 사랑의 또 다른 말”



결혼 전 아내가 입양에 대한 소망을 내비쳤을 때 큰 고민 없이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둘

째가 4살이 되던 해 아내가 입양 준비를 시작하자고 하자 내 마음이 어려워졌다. 가장 걱정 한 것은 입양한 자녀를 낳은 자녀와 똑같이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아내는 나를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면 좋겠다면서 첫째와 둘째와 함께 나에게 입양 사전 교육을 했다. ‘로봇 다리’로 유명한 김세진 군이 한 방송에서 자신이 입양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용기가 생겼다. 모세, 에스더와 같이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입양된 삶이 있다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롬 8:15)이라는 말씀을 통해 입양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내 말에 아내가 “세상에는 좋은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필요한 많은 아이가 있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 충분히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라며 용기를 북돋아 줬다.

아이를 만나기로 한 날을 얼마 앞둔 어느 날, 퇴근하고 차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다. 당시 12살, 8살이던 아들딸이 3~5살 정도로 어린 나이

에 고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비참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다. 환상인 줄 알면서도 평평 울었다. ‘이 세상 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왜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칭하시는지 알 것 같았다. 기도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는데 세상의 모든 고아가 내 자식같이 느껴졌다.

우리 가족은 큰 기쁨 속에서 하린이를 만났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는 나중에 커서 꼭 입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가족에게 입양은 행복과 사랑의 또 다른 말이다.

/ 고봉익 성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하셨을 것이다.]

“헌혈, 마음 같아선 매일 하고 싶습니다!”

이란인 한나델 성도의 이웃사랑과 생명 나눔

‘5.04%’,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국민 헌혈률이다. 대한민국 총인구 51,638,809명 중에서 헌혈 가능 인구는 39,241,355명이다(2021년 기준). 지난해 한 해 동안 1,272,178명이 2,605,537건의 헌혈을 실천했다. 많은 사람이 헌혈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피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헌혈에 동참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피(血)를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 바로 그것이다.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캠페인이다. 6월 5일 성령강림주일까지 이어진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는 국경이 없다. 외국인 한나델 성도(이란인, 일산공동체)는 “대한민국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주저 없이 헌혈하러 나섰다. 본국에서도 해본 적 없는 생애 첫 헌혈이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한 이란인 한나델 성도(일산공동체).

한나델 성도(이란인, 일산공동체)는 13년 전 한국에 왔다. 낯선 땅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내도 만났다. 번역사로 일하면서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에 와서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이 가장 감사하고, 아내를 만난 일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늘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러다 대한민국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쁜 아내를 붙잡고 헌혈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았다.

“지금 당장 환자들에게 줘야 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헌혈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헌혈하려는 마음은 굴뚝같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외국인 헌혈 기준은 통과했는데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있었다. 아내도 헌혈할 수 없었다. 너무 큰 아쉬움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헌혈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없

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계속 기회가 안 돼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체중 미달로 헌혈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옷을 많이 껴입고 가서 헌혈하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웃음).”

온누리교회에서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 시작됐다. 마침 교회로 헌혈 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헌혈 버스에 올라탔다. 본국에서도 한 적 없는 생애 첫 헌혈인데도 긴장이 되지 않았다. 이웃과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만 가득했다.

“헌혈 기회가 계속 안 생겨서 아쉬웠는데 교회에 헌혈 버스가 온다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기뻐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생애 첫 헌혈이었지만 두렵거나 불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제 피를 다

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한나델 성도는 헌혈을 마치고마자 다음 헌혈 날짜를 예약했다. 헌혈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헌혈에는 함께 이란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데려갈 생각이다.

“헌혈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헌혈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헌혈할 것입니다. 다음 헌혈에는 함께 이란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친구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헌혈 지식

- 외국인 헌혈 기준

1. 헌혈 지원 시점으로부터 해외 출국 기간을 제외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단, 해외출국 기간이 최근 1년 내 90일 이상(비연속적인 경우 기간 합산)일 경우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재혈 보류).

2.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거나 제3자의 한국어 통역을 받을 수 있는 자(단, 제 3자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직원 또는 통번역 서포터즈에 해당).

3.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주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 한국 거주 증명 자료 지참 외국인

* 자료출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지난번 순 식구분이 피로회복 시즌 1 때 헌혈하셨는데,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조금 무서웠는데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 최재원 성도

· 헌혈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 권용봉 성도

· 42번째 헌혈입니다. 건강 허락하셔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이선복 성도

·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피로 한 생명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 김영택 성도

· 어제 피로회복 헌혈에 동참하였습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묵상해봅니다.

/ 조윤석 성도

·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자그마한 실천.

/ 윤유조 성도

· 1/25에 이어서 4/14에 생명나눔의 기적에 두 번째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더 볼어 헌혈 30회 기념 은장도 받았습니다.

/ 함정철 성도

· 극동방송 캠페인 듣고 헌혈했습니다

/ 방은아 성도

·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이강신 성도

· 부활절을 맞아 저희 가정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나누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최석찬 성도

· 헌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선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감동했어요.

/ 노은정 성도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 마음과 헌신, 섬김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십일조를 못 내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생활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모님 용돈(생신, 명절) 등을 제하고 나면 저축할 돈도 빠듯합니다. 그렇다 보니 십일조 금액이 크게 느껴지고 아까운 마음 반 하나님께 못 드리고 있다는 죄책감(미안함) 반입니다.”

어렵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보면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 물질과 시간에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예배하고, 한 영혼을 향한 전심으로 사역과 선교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많다. 나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부모님 아래서 신앙을 배웠다. 지금도 그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지나며 청년들의 취업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어려워졌고,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금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호황에서 태어나 불황에 던져진 세대’라는 세간의 평가를 실감할 때가 많다. 그

러나 물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 많다. 우리 교회에는 매년 해외 아웃리치를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 크고 작은 후원을 하는 익명의 청년 성도들이 많다. 선교지와 CGNTV,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꾸준한 섬김의 손길을 결단하는 분들도 많다. 성인이나 청년이나 한 명령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사와 영예로 여긴다.

한편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을 망설이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다. 충분히 공감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망설임으로 하나님께 송구함을 느끼는 마음 자체가 귀한 것이라는 격려를 꼭 하고 싶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린 시절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셨다. 월급쟁이와 달리 수입을 예상할 수 없거나 예상하더라도 맞는 경우가 잘 없다. 어떤 달은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 십일조를 무엇을 근거로 드려야 하는지 고민

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셨다. 십일조나 감사헌금을 어떻게든 드리려고 애쓰곤 하셨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 마음이 담긴 물질이 크든 작든 잊지 않으셨다.

신앙 공동체에서 물질적 헌신은 교회와 선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종교 개혁의 선봉이었던 루터는 성도의 진실한 회심(回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회심해야 한다. 먼저는 머리의 회심, 다음은 가슴의 회심, 마지막으로 지갑의 회심이다. 어떤 성도가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회심의 수준을 보여준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이후 물질적 헌신을 통해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 가난한 성도를 위한 물질적 후원을 가르쳤다. 바울은 훗날 고린도교회 등을 통

해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교회에 재난 지원금을 보냈다. 초대 교회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 헌금은 공동체와 선교를 후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부탁이다. 하나님은 물질의 부족함이나 장래의 불확실함으로 망설이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십일조나 선교 후원과 같은 물질의 헌신과 섬김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섬김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이서진 목사
(허브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화해한 다음 영적 활동 참여!

최근 사역자 모임에 참석했다. 그 모임에서 축하를 받아야 하는 한 신혼부부가 무대에 올라왔다. 사회자는 어려운 시기에 결혼하고 출산도 하게 된 부부를 축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사회자가 그 부부를 대상으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했다. 밸런스 게임은 다소 애매한 선택지를 주고 당사자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항목을 고르는 게임이다.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선택 사항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자는 누가 봐도 행복한 신혼을 살고 있는 사역자 부부에게 알맞은 질문을 던졌다.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고 저녁 기도 모임 인도하기와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고 시댁 방문하기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모든 참석자가 호기심을 갖고 그 부부의 대답을 집중해서 기다렸다. 대답해야 하는 아내도 같이 있는 남편도 몹시 재미있어하면서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고심과 웃음의 짧은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겨우 답을 내렸다. “최근에 시댁에 다녀왔기 때문에 굳이 선택한다면 부부 싸움 이후 저녁 기도 모임 인도를 택할게요”라고 대답했다. 모두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재미있게 웃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느 선택지 하나도 쉬운 상황이 없다는 것을 사역자라면, 믿는 자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적지 않은 기혼의 청중이 ‘제발 나에게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다. 예배 참석 전에 우리네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로 바쁘게 준비한다. 아이들 씻기고, 옷 입히고, 헌금과 성경책 챙기는 주일 아침 평범한 가정의 모습일 것이다. 가장 귀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척 바쁜 마르다의 분주함을 경험해야만 한다. 서로가 정신없이 준비하는 분주한 시간은 부부에게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서로 여유가 없어서 짜증과 불평이 자신도 모르게 분출될 수 있다. 바쁜데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분노를 경험하기도 한다.

부부가 바쁜 시간에 유독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는 시간관념에 유독 예민해진다. 반면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반듯하게 준비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일에 더 가치를 두는 배우자도 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배우자와 시간보다 가족 개개인의 사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배우자라면 모임 참석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매우 예민해질 수 있다. “왜 이리 재촉하느냐”, “시간을 지켜야지”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자주 겪는 부부라면 부부 싸움의 원인을 찾아보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늦는 상황도 용납하자’, ‘준비는 조금 덜 됐지만,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라고 마음을 바꾼다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밸런스 게임의 선택지로 제시됐던 것처럼 심각하게 부부 싸움을 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 마음에 분노를 품고 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다. 물론 이런 상황이 익숙한 사람은 ‘거룩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모임에 참여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누구도 그 사람의 가면 뒤에 가려진 부부의 갈등과 분노,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면을 단단히 쓰기도 한다. 이것이 때로는 성숙과 인내라는 모양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면을 쓰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가정을 꾸리지 않고 혼자서 살아간다면 자신의 본 모습 위에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럴듯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말이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면 자신의 본 모습은 최소한 배우자와 가족은 알아볼 수 있다.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면 속히 감정을 다스리고 서로 화해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의 성숙성이 필요하다. 부부가 서로에게 풀리지 않은 부정적 감정과 분을 품은 채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영적인 모임이나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감정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면을 쓰는 것이 항상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적절한 가면을 쓸 필요도 있다.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거

리가 필요한 사회적인 관계라면 자신을 보호하고,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적절한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면, 더 나아가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나 관계적 뒤를림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부부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 되는 힘든 점, 해결되지 않고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마음은 수용될 만한 자리, 안전한 자리에서 털어놓는 것이 부부에게 도움이 된다. 전혀 받아줄 준비가 되지 않은 자리에서 부부 싸움 이야기, 부부 싸움 이후 마음에 쌓여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쏟아 놓는 것은 오히려 부부에게 수치감과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 가면을 쓰는 것과 여과 없이 쏟아 놓는 일에는 부부의 현명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화해한 다음 영적 활동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성숙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 예배나 교회 활동에 참석하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마 5: 21~26).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회자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
스테판 B. 폴터 저 | 비전북 | 14,000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 나는 모든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에 참 좋은 권위자, 선한 권위자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 권위에 항상 저항하고 반항했었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를 강압과 간섭으로 여겼다. 나는 권위자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오늘 소개할 책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이 책에는 크게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시한폭탄형 아버지’, ‘수동형 아버지’, ‘부재형 아버지’,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 다섯 가지로 아버지 유형을 분류한다.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앞의 네 가지 유형과 마지막 유형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앞의 네 가지 유형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일과 관계에서 특정 어려움을 경험한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친구처럼 편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내가 사춘기 때 아버지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고, 대체로 ‘시한폭탄형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셨다. 시한폭탄형 아버지는 자신의 분노를 자녀와 아내, 동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내지르는 유형이다. 이러한 아버지 유형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불안함을 느끼고, 직업 영역에서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나 역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그들의 반응마저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단적인 예로 나는 상대방과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말실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그 시절 아버지의 모습 덕분에 나는 타인의 기분과 행동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을 갖출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께서도 이 책을 보고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들의 인생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나의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깨우치셨다. 아버지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자신과 나와 관계를 재조명하며 인간관계의 핵심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리고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가슴으로 이 책을 읽으시며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마지막 유형인 ‘멘토형 아버지’가 되어 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셨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지금 나는 같이 공부하는 신학대학원 동기 전도사님들로부터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거침 없이 나를 드러내지만 그 모습이 싫거나 나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아 참 보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대학생 때의 나는 성격이 모나웠으며,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나와 가볍게 관

계를 맺는 사람은 많았지만, 깊이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생 때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네가 그랬다고?”와 같은 의아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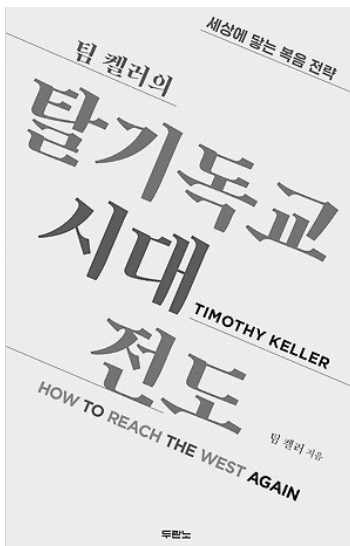
오늘 소개한 책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또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생명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자녀들이 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서예찬 전도사
(회복사역)

두란노 신간

진정 세상에 닿는 복음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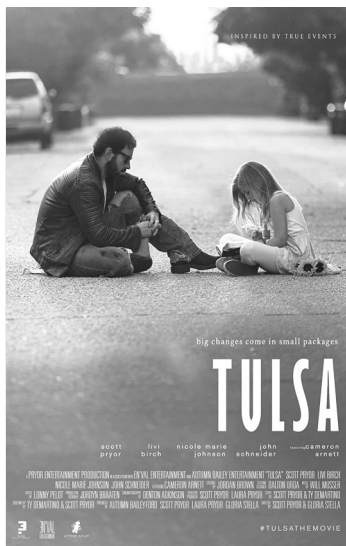
〈팀 켈러의 탈 기독교 시대 전도〉
팀 켈러 저 | 두란노 | 9,000원

야 하며, 사람들을 리드하되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저자의 말에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새겨야 할 자세가 모두 들어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은 갖되 세상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들어가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만의 교회(건물)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교회 되어 세상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진정 세상에 닿는 복음 전략일 것이다.

기독교 OTT ‘퐁당’ 콘텐츠 추천

그 어떤 파도가 덮쳐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영화 ‘텔사’

텔사도 토미 덕분에 새로운 일상을 살아간다. 학교도 가고, 아빠와 함께 예배도 드린다. 그런데 꿈같은 행복이 잠시였다. 고난이 토미와 텔사를 비껴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텔사의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토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간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화를 기독교 OTT ‘퐁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시청방법: 기독교 OTT ‘퐁당’에서 ‘텔사’를 검색하세요.

마치 폭풍 한가운데 놓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기지 혹은 든든한 신뢰 아닐까? 영화 ‘텔사’에서는 폭풍 속에 던져진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그 어떤 파도가 덮쳐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영화 ‘텔사’는 해병대 퇴역군인 토미가 절망의 끝에서 존재조차 몰랐던 딸 ‘텔사’를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주인공 토미의 삶은 공허로 가득했다. 술과 약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빠져나올 의지조차 없었다. 폭풍 속에서 위태롭게 항해하던 토미에게 오 토바이 사고로 엄마를 잃은 딸 텔사가 찾아온다.

텔사는 토미의 일상을 바꿔나간다. 토미의 집을 정리하고, 토미 스스로 삶을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 준다. 토미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한다. 텔사의 믿음이 토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토미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와 동료들도 텔사의 믿음에 영향을 받는다. 토미는 점차 상실과 중독에서 회복된다.



강남B공동체가 지난 1일 주님의숲교회에서 암환자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다.

강남B공동체, 암환자 위한 콘서트 아웃리치

주님의숲교회(양평) ‘히즈가든 콘서트’ 250명 참가

강남B공동체가 아주 특별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지난 5월 1일(일) 주님의숲교회(양평군 서종면 종달리 삼태봉길 38)에서 암환자들을 위한 콘서트 아웃리치 ‘히즈가든 콘서트’를 개최했다.

주님의숲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교회 근처 요양 시설에서 지내는 암환자들이다. 강남B공동체가 개최한 히

즈가든 콘서트는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암환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물했다. 강남B공동체 성도 150명, 주님의숲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 100명이 함께 했다. 히즈가든 콘서트에서는 챔버 연주, 소프라노 신델라, 가수 임수정, 가수 마음과 마음(임석범, 채유정)의 공연이 이어졌다. 메시지는

이진우 목사(전 탤런트)가 전했다.

이혜원 권사(주님의숲교회)는 “맑은 하늘 밑에서 아름다운 콘서트를 열어주신 온누리교회 강남B공동체에 감사하다”고 했고, 박정희 집사(주님의숲교회)는 “많은 주민과 암환자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5월 27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2-2182-9110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로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Zoom)으로 강의한다. 이혼한 남녀,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남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가 대상이다.

수강신청은 5월 2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2539-5665

“지구촌 이웃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1,125명 2억9천만 원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5월 7일(토)과 8일(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개최한 정기후원 약정식에서 성도 1,125명이 2억9천만 원을 약정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성도들의 후원금을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 ‘긴급구호’ 등 지구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후원하신 헌금을 소외 받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인사했다.

선교의 영성 회복!

5월 24~26일 대전온누리교회 ‘말씀사경회’

대전온누리교회가 오는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오후 7시 30분 대전온누리교회 본당과 세종교육관 본당에서 말씀사경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선교의 영성’이다. 대전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

여할 수 있다.

이번 말씀사경회 ‘선교의 영성’에서는 도육환 목사(양지온누리교회 담당)가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다.

/ 홍하영 기자

생명나눔은 계속되어야 한다!

6월 5일까지 헌혈의 집, 헌혈 카페

생명나눔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오는 6월 5일 성령강림주일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

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김영숙 선교사, 온누리복지재단 감사장 받아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 ‘온소미’에 장학금 기부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 ‘온소미(溫笑美)’에서 지난 5월 9일(월) 장학금을 기부한 김영숙 선교사(일본어배부, 故 김사무엘 선교사 사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온소미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김영숙 선교사는 “일본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귀한 인재들이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누리복지재단의 귀한 사역에 미약하나마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영범 대표이사(온누리복지재단)는 “그간 김영숙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김영숙 선교사(좌)와 송영범 장로(우).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늘 감명을 받았는데,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에도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장학사업 온소미를 통하여 항학 의욕과 재능은 우수한데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 및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6회 용산구 어르신들의 날’ 행사

용산구 거주 어르신 3,500명 참석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조혜진 관장)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5월 7일(토) 용산가족공원에서 ‘제6회 용산구 어르신들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용산구 거주 어르신 3,500명이 참석했다.

‘제6회 용산구 어르신들의 날’ 행사는 청소년 치어리딩팀(엔젤킹)의 공연, 모범 어르신 및 노인복지 기여

자 18명 표창, 후원기업 6곳 감사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922년 생으로 만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드리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멋진 행사를 열어줘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태아도 어린이예요!”

아름다운피켓 어린이날 캠페인

지난 5월 5일(목) ‘아름다운피켓’(프로라이프 비영리 단체) 어린이날 캠페인 ‘태아도 어린이예요’가 신촌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입양의 좋은 점, 프로라이프 단체 등을 홍보하고 소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장려하는 이벤트 부스(게임, 선물 증정, 마술쇼 등), 입양 및 낙태 예방을 호소하는 강연자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예심 대표

(코우즈 영어 대표), 김지환(아빠의 품 대표, 베이비박스 운영팀장), 고봉익(TMD교육그룹), 김민아(인플루언서, 엠캣TV 대표), 서윤희 대표(아름다운피켓)가 메시지를 전했다. 봉사자 심유정 자매(허브대학부)는 “생명 살리기 운동에 참여해서 많은 분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2000선교, 힐링캠프 개최

이경숙 선교사 등 여성싱글선교사 15명 참석

2000선교본부가 온누리교회 여성싱글선교사를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5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제주 JATC에서 진행됐다. 이경숙 선교사 등 여성싱글선교사 15명이 참석했다.

권은영 선교사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배려 덕분에 동역자들과 교제

하고, 신앙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인사했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25일(수)에는 Acts 29비전빌리지에 안식년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를 오픈한다.

■ 탈북다문화청년대안학교 '우리들학교'



/ 윤동주 교장(탈북다문화청년대안학교 '우리들학교')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의 이웃

우리들학교는 2010년 설립된 탈북다문화청(소)년대안학교다. 우리들학교는 27세 탈북청년 한 사람을 위해 세워졌다. 열다섯 명의 전 현직 크리스천 교사들이 무보수를 지원했고, 심시일반 학교 운영비를 현금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23세 이상 탈북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고, 제3국 출생은 한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해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들학교를 시작했다.

우리들학교 학생들의 사연이 구구절절하고 딱하기 그지없다. 오랜 탈북과정으로 진학 시기를 놓친 청년,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학생, 미혼모, 중국에서 도피 중 어머니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풀지에 고아가 된 사람, 북한과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낮에는 공부하고 주말과 밤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 송금하는 학생 등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들이 대다수다. 수업을 받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남양주, 용인, 화성, 병점, 하남, 고양, 평택, 온양 등지에서 매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쓰럽고 대견하고 미안하다.

나는 우리들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탈북자들에게 금전적인 선심성 지원보다 체계적 교육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교육(한국어 및 초·중·고교 과정) 없이 금전적 지원만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 싸는 격이다.

지금껏 우리들학교 학생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름과 빛도 없이 섬겨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SNS청년부에서 고난주간 금식헌금을 기부해주셨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몹시 지쳐있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기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교육의 기회를 놓친 탈북청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소망한다. 탈북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의 이웃이다.

문의: 02-6015-6245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장한결, 임열매 선교사(몽골)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큰 힘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에서 850km 떨어진 브리야트의 한 마을을 방문해서 교정번역까지 마무리한 <마태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마을에 모인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우리가 준비한 설문지에 답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브리야트 민족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섯 분의 번역팀원들이 성경번역이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일이라 여기며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번역팀이 작고 좁은 사무실에서 조금 더 넓고, 몽골성서공회와도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별이는 소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은 저희의 결혼 22주년 기념일이자 별이가 법적인 자녀가 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고 다 함께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별이에게도 이날이 특

별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한국의 입양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별이가 법사에 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학급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자신이 받은 선물들을 나눠주고, 냉장고에서 먹을 것도 꺼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그간 별이가 겪었을 외로움과 놀림, 아픔들이 느껴져서 슬프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입양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는데, 몽골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입양을 진행한 지 만 4년째입니다. 몽골 현지법에 근거해서 서류를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법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6월이면 18세가 되어서 고아원을 나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두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고아원은 이들의 방을 구해줄 재정은 없다고 합니다. 두 학생을 어떻게 도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큰 힘입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주십시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김현식 집사(중종로공동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깨달은 것만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부모자녀성장학교 '파워임팩트'에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삶에 의욕이 없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싫었다. 그런데 파워임팩트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다는 것은 믿었지만, 나를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셨다. 그런데 내 속의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것을 가리고 있었다.

내 상처가 아내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렵게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관계는 아내와의 관계였다. 아내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말했다. 파워임팩트에 참여하면서 아내가 왜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주위에서 불안해하면 같이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부족함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려운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신앙과 부족한 지식을 배우면서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믿음, 나의 부족을 깨닫고 더 배우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김명희 성도(인천온누리교회)

매시간 감탄하고 감동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신청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조과학에 관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창조신앙스쿨은 믿음으로만 품고 있던 내용을 지식으로 전환할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왜 교과서에는 창조론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지 궁금한 적이 없다.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배웠다. 그렇게 자랐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그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창조론은 설화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창조신앙을 교육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생물은 생활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는 진화론의 주장을 해석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또

남성의 세포핵 내의 DNA를 분석했을 때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노아의 홍수시대 방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도 놀라웠다. 당시 동물들이 어떻게 방주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 대홍수 이후 환경과 인간 수명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해주었다.

지구와 우주 강의는 나의 지각을 넓혀주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 목성과 토성은 왜 큰지, 지구의 중력과 자기장 등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설계였다. 태양, 행성, 혜성들로 이루어진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시스템이 오직 강력한 지성적 존재의 계획과 주권으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매시간 감탄하고 감동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우리 아이들도 이 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피부로 느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장로칼럼

NGO 더멋진세상을 보내신 이유



조성수 장로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 김포공동체)

라오스 댐 붕괴로 긴급구호를 떠났을 때 이야기다.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 주 사남사이 지역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했다. 5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전 세계 NGO 단체에서 긴급구호를 시작했다.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도 라오스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했더니 일대가 뻘밭이 되어서 도시 밖으로 나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제적인 NGO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도시에서 구호물자만 나눠주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힘들지만 주민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진장을 지나 어렵게 한 마을에 도착했다. 하 나뉘게서 NGO 더멋진세상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마을은 오래된 불교 마을인데 크리스천이 딱 세 가정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가까운 대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이 위기에 처했을 때 크리스천 NGO 더멋진세상 구호팀이 그 마을을 찾아가 구호품을 나눠줬다.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이 “너희가 믿는 신이 사람과 구호품을 보냈다”며 크리스천 가정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움츠러들었던 크리스천 가정들의 어깨가 펴졌고 지금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그 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정교회를 일구고 있다는 근황을 전해 주셨다.

나는 사랑에 빛진 자다. 나에게 믿음은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NGO 더멋진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

신 것 같이 지구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1만여 명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고 계신다. 지난 5월 7일과 8일 열린 정기후원 약정 행사에서도 1,125명의 성도님들이 2억9천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약정해주셨다. 이 지면을 빌려 NGO 더멋진세상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NGO 더멋진세상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신다. 많은 성도님이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금을 전달해주는 기관’, ‘제3세계에 집을 지어주는 단체’, ‘긴급구호를 하는 단체’ 정도로 알고 계신다. 모두 NGO 더멋진세상이 하는 일이 맞다. 하지만 NGO 더멋진세상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선교하는 단체다.

NGO 더멋진세상은 다양한 사역을 한다.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다. 지역에 따라 오디오 성경 듣기모임 등 다양한 복음사역을 펼치기도 한다. NGO 더멋진세상의 섬김이 이어지면 마을이 개발되고, 주민들의 마음이 건강해진다. 천대받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부흥이 찾아온다.

NGO 더멋진세상이 목도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성도님들과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다.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NGO 더멋진세상 기도모임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싶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곧 오프라인 기도모임을 시작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기도모임에서는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의 은혜와 기도제목 등을 나눈다. NGO 더멋진세상이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권사칼럼

서로의 의미가 되어 사는 행복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아버이날이었다. 식당마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 단위로 식사하는 팀으로 차고 넘쳤다. 이런 날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더 난다. 우정 시내까지 나가서 엄마가 좋아하시던 한련화 몇 분을 사다가 제일 잘 보이도록 화단 중앙 양지쪽에 심었다. 내게 한련화는 그냥 꽃이 아니다.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마치 엄마를 보듯이 보고 또 본다. 액면 가치로 치면 불과 몇천 원에 불과하지만 내게는 더없이 소중한 꽃이다. 한련화가 다른 꽃보다 유독 예뻐서가 아니다. 특별한 의미로 내 안에 살아서 그렇다. 꽃의 외양이 얼마나 예쁜지는 호불호의 대상이 아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기에 무조건 내게 최고의 꽃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다. 내 새끼이기에 이 세상 어떤 훌륭한 자식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잘 나고 못 나고는 이미 비교의 대상을 넘어서었다. 살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의미가 되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행복은 삶을 참 윤기 나고 축축하게 한다. 누군가의 의미가 되어 서로 사랑할 때 절로 관심이 가고, 무엇을 쥐도 아깝지 않고, 알뜰히 챙겨주고 싶고, 금방 봐도 또 보고 싶고, 늘 그리움 안에 산다.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다.

가슴으로 만나 친동생 맞잡아도 가깝게 지내는 동생이 생일이라 예쁜 떡 케이크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선물로 보냈다. 서로의 의미가 되어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그녀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덩달아 나도 행복해졌다. 소소한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랑을 든든히 이어주는 끈이다.

꽃을 심고 난 다음 동거하기로 마음먹었던 잔디밭의 민들레와 망초순, 쑥을 공들여 뽑았다. 며칠 뒤 집에 온다는 친구를 생각하며 나물이라도 해 줄 요량으로 일에 욕심을 부렸더니 그거 좀 구부리고 일했다고 허리가 아프고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라 뻘뻘해지고 손목이 시리다. 그래도 맛나게 먹어줄 친구를 생각하며 깨끗하게 다듬어 냉장고에 갈무리 해두니 무슨 큰일이나 한 듯 흐뭇하다.

일을 다 마쳤더니 후두둑 비가 돈다. 오래 가물어 비를 기다리던 차에 어찌나 반가운지. 꽃모종한 끝에 비가 오니 더더욱 감사하다. 어둠이 질게 깔리고 기다리는 이의 발소리만큼이나 정겨운 빗소리가 귓전을 맴돈다. 몸 생각하며 풀과의 전쟁을 포기하리라 다짐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나 자연스럽게 썩지락거리게 되고 한 번 손대면 요것만, 요것만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게 풀이라 쉬엄쉬엄이 안 되고 무리를 하게 된다. 흰해진 잔디밭을 보면 대견스럽고 일한 보람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 뒤 끝은 허리가 땅에 붙고, 몸살처럼 온몸이 육신겨려 밤새 끄궁 앓는다. 따끈하게 올린 전기장판의 온기가 온몸을 감싼다. 서서히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적막을 뚫고 빗소리에 실려 오는 그리움 안에 머문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하나둘 스친다. 소중한 의미로 다가서는 사랑하는 이들이다. 사랑할 사람이 있어 행복하고, 사랑해주는 이들이 있어 고맙다. 내게 의미로 다가오는 소중한 인연들, 관계의 끈을 어떻게 잘 엮어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깔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진솔함을 바탕으로 배려와 따뜻함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하리라. 서로의 의미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서기를 소망한다. 좋은 인연들로 율타리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안에 사는 이들에게 오늘도 아침 안부를 보낸다. 이 하루도 복된 날 되소서.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지구상 모든 인류가 함께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이 있을까? 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 타락 이후 저주 받은 자연의 법칙만이 지배할 때가 있었다.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8-19).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자연을 다스릴 수 있던 권위는 불순종의 죄악

으로 타락하게 된 이후에 완전히 상실했다. 하지만 인류는 자연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자의적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첫 사람(아담)이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만의 법을 만들어 변화시키며 활용하게 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 운영되었던 법들은 점점 더 계산적으로 되어갔다.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실제적인 판례들이 더욱 이기적이고, 더욱 모호해지고, 더욱 기득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법이 추구하는 비전이 ‘공적인 유익’이라는 큰 그림을 구현한다고 했지만 아니었다.

예수님의 사형 판결 사건을 보면 당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것을 잘 알 수 있다. 유대 율법과 로마법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결국 두 법이 혼합되어 변질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두 법 사이의 부딪침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 피지배 민족과 지배 민족, 유대교 신앙과 이교(異敎)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매우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사이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은 법 해석과 자존심의 강력한 충돌을 자신의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것이 구체적인 폭력으로 드러났다. 등잔에 내리쳐져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질, 온몸을 조롱하듯 휘감은 자주색 옷, 머리에 씌운 가시면류관, 땀을 후려치는 손바닥,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저주 섞인 군중의 외침 소리, 자신의 의지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의 협박 속에 지위와 명예가 흔들리기까지 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 로마 시위대 뜰에 깔린 포장된 도로 곧 ‘박석(薄石)’이라는 의미의 재판석에 앉게 된 빌라도의 불안한 눈빛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태도까지 발생했다(요 19:1-13).

예수님의 판결 사건은 세상을 지배하던 종교적인 법과 정치적인 법이 예수님의 영과 마음, 몸을 향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세계를 대표하며 인류를 이끌었던 두 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속의 법이 가진 폭력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 사형 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인도하며 도달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길이 되게 하셨다.

“나(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요 14:6).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하고 계신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매일이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

십자가의 길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헤세드 사랑이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배반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인간이 모든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게 함으로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신실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헨리 클라우드 박사의 말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와 갈망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희생하고, 나눠주고, 고통받는 것이다. 오랫동안 언약을 지키기 위해 상처와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을 지탱하고, 가정 안에 사랑을 가져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한 인물을 꼽으라면 ‘잔느 귀용’이라는 여성입니다. 잔느 귀용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된 이유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잔느 귀용은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느 귀용은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어떤 이유

인지 잔느 귀용을 22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잔느 귀용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의도하지 않은 결혼이었습니 다. 결혼식 며칠 전까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도착한 시댁은 그녀의 초상집과 같 았습니다. 정중함과 예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정이었습니 다. 특히 시어머니는 매사에 잔느 귀용의 결점을 들춰내고, 친절을 비난하고, 친절 부모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는 누군가에 의해 바뀌치기 된 아기였 을거야. 너희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네 마음속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들어 있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며 저주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네가 온 후 부터 집안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던 말이야.”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 떤 고통을 받는지를 알면서도 남편 역시 그녀를 아주 난폭 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하녀를 며느리에게 붙 여 놓고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녀마저 그녀를 무시하고 반 항하고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만 듣는 하녀였기 때문 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아파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 시어머니의 핍박, 하녀의 괴롭힘이 잔느 귀용을 매일매일 죽고 싶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 습니다. 잔느 귀용이 천연두에 걸려서 거의 죽어갈 때도 시 어머니는 치료도 안 하고 방치했습니다.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를 야단칠 정도였습니다. 잔느 귀용이 어느 날 친절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소개해준 수도사를 만납니 다. 성프란시스코회 수도사를 만나고 그 수도사를 통해서 아가서 1장 3절 말씀을 받습니다. “네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부어놓은 향수 같다”는 말씀 속에서 잔느 귀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임하시 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댁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순간적으 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룰 정도로 하

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겼 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한 기름처럼 제게 흘러넘쳐 남은 나의 모든 자아를 다 태우는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잔느 귀용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헤세드 사랑 으로 승리했습니다. 남편의 병 수발드는 것을 단순히 남편 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여기며 기 뻐게 했습니다. 엄청난 시어머니의 핍박과 저주가 있었지만, 엄청난 내적인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고통이 클수 록 하나님의 깊은 헤세드의 사랑이 그녀에게 충만했습니다. 잔느 귀용이 쓴 많은 글은 고통 속에서 진주처럼 빛어진 하 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 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잔느 귀용은 28살에 남편과 사별합니다. 잔느 귀용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서원 하고, 7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많 은 사람에게 나누는 글을 남기고, 강연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잔느 귀용은 헤세드 사랑으로 최악 의 가정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 깊 이 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잔느 귀용과 같은 고통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 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헤세드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야 합니다. 서로의 죄와 허물을 은혜로 용서하는 사랑, 서로 의 차이를 수용하는 사랑, 약속의 언약에 신실한 사랑, 세월 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무 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가정의 목표가 나의 행복이 라고 생각하면 행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면 가 장 불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을 알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 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조혜진 관장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 복지관(이하 용산노 인복지관)이 온누리 복지재단 안에서 복 음의 비전을 품고 사역에 동참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 다. 지나온 모든 순 간이 하나님의 은혜 였고, 성도님들의 사 랑 덕분이었다. 오늘도 우리는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 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용산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이 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일은 개인, 가 정,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 끝은 오롯이 주께 영광

을 돌리기 위함이다.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이 겨내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경제적 어려움으 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후원자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이 시시각각 변하 는 환경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배 움의 기회를 지원한다. 용산노인복지관의 모 든 봉사자와 나눔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드러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과 같다. 어르신의 일상 을 함께하고 행복을 이어가는 우리의 사역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다.

용산노인복지관은 용산구 한남동에 있다. 한 남동은 알아주는 부자 동네로 다양한 문화와 새로움이 공존하는 곳이다. 반면 차량 진입이 어려운 높은 언덕과 추운 겨울 연탄을 때는 오 래된 집들도 빼곡하다. 그곳에 용산노인복지 관이 있다.

용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8,000 명 중에서 70% 이상이 80대 이상이다. 3분의 1 이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다. 매일 어르신

300명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 르신 260여 명의 안부와 일상생활을 살피는 일 이 용산노인복지관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다. 봉사자가 전해주는 따뜻한 도시락으로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김O자 어르신에게 용산노인 복지관은 ‘엄마가 해주던 그 밥’을 전해주는 엄마 품 같은 곳이다.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정 신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복지사에게 발 견된 박O순 어르신에게는 ‘생명을 구해준 은 인’ 과도 같은 곳이고, 삶이 힘들어 자살을 시 도했던 정O순 어르신에게는 ‘다시 살아갈 의 미를 찾게 해준 선물’ 과도 같은 곳이다. 다양 한 인생만큼 다른 아픔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용산노인복지관은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곳이 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 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 랑하신 이웃을 위해서다.

용산노인복지관의 지난 20년은 우리의 힘만 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모든 봉사자, 직원들, 이 용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세워왔다. 지난 20년

을 감사하며 앞으로 20년을 설렘으로 준비하 고자 한다. 어르신에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디 자인하는 공간이 되고, 이웃에게 봉사와 후원 으로 함께 하는 나눔의 공간이 되며, 직원들에 게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예수님의 사랑 을 전하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때로는 민원인의 가시 돌진 말이 상처가 되 기도 하고, 어르신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지 못 해 속상할 때도 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 며 행복한 미소로 함께해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그리 스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꿈꾼다.

용산노인복지관이 그려갈 앞으로의 20년이 기대된다. 꿈꾸는 어르신들이 더욱 많아지도 록,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흐르도록, 독수 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더욱 힘차게 날아오 르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더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문의: 02-794-6100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5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느님 슬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पाल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Dream Kids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4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열방예

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09:30 301/봉사자예배 9:30/네팔

어예배 10:30 302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Love Hall / 차세대 주일 11:30

Joy Hall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11:30 301호 / ANEWS예배

(영어) 주일 16:00 301호 / 한디아예배 토요일 오후

7:00 301호 /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3: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6월

개강)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CMN 미용스쿨 초급반 모집

내용: 가위 사용법, 기초 컷팅, 기본파마

일시: 6월 3일~28일(매주 화, 금), 양재 오전

반 오전 10~12시 양재 JDS홀, 서빙고 오후

반 오후 2시~4시 서빙고 B102호

수강료: 8만 원(간식 제공)

재료비: 20만 원(가위 세트, 파마 도구 일체,

컷트보 등) ※재료가 있는 분은 제외

신청: 문자 또는 아이스쿨

문의: 정선 팀장(010-9034-5369)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온라인 프로모션 이벤트 및 배너 디

자인 등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

일 근무

지역: 서울 광진구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두란노서원 출판1부 편집디자인

채용

모집: 기독교 단행본 편집 디자인(표지, 본

문)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

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담당: 박사무엘 목사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1~중1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실

문의: 010-9927-4224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모집: 선교지 행정지원(중동/아프리카 지

역) 정규직 1명

지역: 양지Acts29비전빌리지 3층

근무: 6월부터 시작

문의: 070-4464-8102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0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체플러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라인커뮤니티 모집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일대일양육자반 양재 주일 박동현

장로반

신청: 6월 4일까지

일시: 6월 5일~9월 25일 매주일

1시 30분~4시

장소: 양재 이스라엘홀

문의: 02-570-7349

NGO 더멋진세상 단기사역자 모집

사역: 르완다, 말라위, 세네갈에서 회

계, 교육, 농업, 교회 사역 등 담당

기간: 1~2년

문의: 070-4402-5015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기도회

대상: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자녀

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

일시: 5월 16일 월요일 10:30~12:00

장소: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

문의: 02-2182-9114

부 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30 / 3부 오후 2:00 / 대

학청년 오후4:00(대청예배) /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 유치부 9:00, 11:30 / 유년부 9:00,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

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

BIBLE KING

전국에 숨은 암송 고수들이 모였다!
1,000명의 지원자 중 '바이블킹'은 단 1명,
바이블킹을 향한 대장정을 '퐁당'에서 만나보세요!

◆ '바이블킹' 시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다운로드



스마트TV로 시청하기
LG, 삼성 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설치



PC로 시청하기
www.fondant.kr



**바이블킹
바로보기**

◆ 바이블킹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셋! ◆

EVENT 1

'초성 바이블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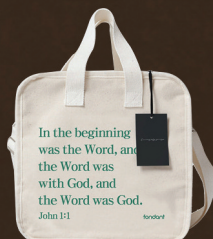


매주 10명 추첨

바이블 데스크매트
바이블킹 영상을 보고
초성 퀴즈를 맞혀보세요!

EVENT 2

'나도 바이블킹'



100명 추첨

바이블 쿨러백
성경 암송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내주세요!

EVENT 3

'함께 바이블킹'



참가자 전원

바이블 메탈 스티커
공동체와 함께
바이블킹을 시청해보세요!

* 자세한 참여 방법은 **CGNTV**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